치솟는 수입 물가… 가게도 가계도 '울상'

의류·신발 10% 이상 상승… 멀티숍, 마진줄여 출혈 판매

포도·파인애플 등 신선식품 직격탄… 장바구니도 요동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수입 의류 및 식품 등의 수입단가가 오르면서 수입업자와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79원으로, 지난달 1일 1070원에 비해 110원 가량이 상승했고, 원·엔화는 같은 기간 1394원에서 1536원으로 엔당 150원이나 올라 수입 상품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입 의류 멀티숍 '울상'**=최근 '아베크롬비'(Abercrombie), '홀리스터'(Hollister) 등 미국산 수입 캐주얼 의류가 젊은 층의 인기를 끌면서 광주지역에 급격히 늘어난 '멀티숍'들은 원가 상승으로 물건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의류와 신발 등의 원산지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부분의 멀티숍이 주로 판매하는 '아베크롬비'와 '홀리스터' 등은 최근 현지 가격 상승이 이뤄진데다 환율마저 올라 주문을 제때 하지 못해 점포별로 재고량이 크게 줄었다.

각 멀티숍별로 수입가와 판매가가 다른 탓에 쉽게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것도 '멀티숍' 업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꼼꼼한 가격비교가 특징인 젊은 층 고객들은 '비싸다 싶으면' 그새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리기 때문에 멀티숍 업주들은 환율 상승분을 판매가에 쉽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주들은 마진폭을 줄이는 '출혈'마저 감수하고 있다.

충장로에서 K멀티숍을 운영하는 황모(44)씨는 "환율 상황에 따라 주문을 늦추거나 포기하면서 환율이 진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계속 오르거나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상품 구색 맞추기도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과일·가공식품도 올라**=수입포도와 파인애플, 블루베리, 자몽, 키위 등 보관 기관이 짧은 신선식품들은 환율 상승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돼 빠르게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입 포도(800g 팩 기준)의 경우 지난달 초 5800원에서 지금은 6500원으로 12% 가량 올랐다.

대표적 수입 과일인 바나나는 2~3주 정도 숙성보관 후 판매가 되는 상품 속성상 아직까지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10월 중순 이후에는 환율상승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해 8~9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이르면 10월 중순 이후부터 할당관세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환율상승과 함께 관세율(30%)까지 더해지면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스킷과 스낵, 초콜릿, 사탕, 된장 등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도 가격 상승이 점쳐진다. 현재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 진열된 상품들은 대부분 원·엔화 환율이 엔당 1300원대 후반에 수입된 것들로, 재고가 소진되고 조만간 새로 출고되는 시점에는 15% 선까지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마트 상무점 관계자는 "사전 계약해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도 있지만, 높은 환율이 장기간 지속되면 조정을 거쳐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순천시 조례동 조례호수공원 건너편에 마련된 중흥건설의 '중흥 S-클래스' 주택전시관이 수요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순천 신대지구 '중흥 S-클래스 3차'

3920명 몰려 3대 1 마감

순천시 신대지구에 분양 중인 중흥건설의 '중흥 S-클래스 3차' 아파트가 1, 2차에 이어 순위 내 청약을 마감했다.

3일 중흥건설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 주거단지인 순천 신대지구의 '중흥 S-클래스 3차' 청약 접수 결과, 일반 청약 1280가구 모집에 3920명이 신청해 평균 3.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72㎡(28평)의 경우 최고 경쟁률인 6.14대 1을 기록했다.

유럽 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같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것은 순천·여수·광양 등 광양만권 실수요자들이 '중흥 S-클래스' 브랜드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청약 경쟁률 2.45대 1을 보인 2차 아파트의 분양률이 98%로 사실상 분양을 끝낸 상태"라며 "이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인 3차 분양도 성공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중흥 S-클래스 3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20개 동, 전용면적 72㎡(28형) 135가구, 84㎡A(33형) 581가구, 84㎡B(33형) 580가구 등 총 1296가구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전세대 4-베이 설계에 광양만권 최초로 미니축구·탁구·농구가 가능한 단지 내 대형 멀티스포츠시설이 갖춰진다. 순천 신대지구에는 전남 최초 외국인학교와 18홀 골프장이 들어선다. 분양 문의 061-727-1000.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 中企 45곳 방위산업체 육성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가 지역 중소기업 45곳을 방위산업 관련 업체로 키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3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광주시, 한국차량공업 등 지역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광주 민·군기술협력 협의회'를 구성, 최근 출범식을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 중소기업 45개 업체의 방위산업 진출을 목표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 교류는 물론 신규 아이템 발굴, 공동 세미나·워크숍 개최, 기술개발 및 판로 개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국방 정책과 사업에 맞춰 8대 무기체제를 고려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하고 관련 제품 중심의 시장 분석 및 기술 개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삭아삭 가을을 맛 보세요"

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식품 매장은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한 홍로 사과를 선보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히든 챔피언' 지역 편중 극심

155개 업체중 광주 4곳 불과… 지원금 영남권이 호남 9배

수출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육성하는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제도의 지역간 지원 격차가 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광산을) 의원이 3일 수출입은행이 운영중인 '히든챔피언' 선정·육성 대상기업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선정된 155개 업체 중 광주지역 업체는 고작 4개 업체로, 전체 2.5%에 그쳤다.

지원금액도 총 지원금액 2조7325억원 중 광주지역 업체 지원금액은 228억원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84개 기업(1조2997억원·48%), 영남권 43개 기업(1조388억원·38%)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86%를 차지했다. 수도권 지원금액이 호남지역의 11배에 달했고, 영남권 지원금액 또한 호남지역의 9배 수준이었다.

충청권은 18개 기업에 2776억원(10.1%)이 지원되는 등 지역 간 지원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히든챔피언 신청업체 대비 선정업체 비중도 영남권은 53%에 달했으나, 호남권은 40%에도 못 미쳐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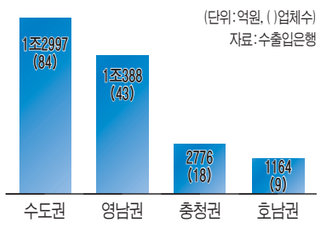
이 의원은 "히든 챔피언 제도의 취지와 지역별 신청업체의 적합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영남 집중 현상은 문제가 있다"라며 "업체 선정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평가 항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중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010년 기준 전년대비 감소한 기업은 전체 147개 업체 중 61업체에 달했다"라며 "객관적인 선정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실화 및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매출액 400억 원 이상 1조원 미만의 수출 중소 중견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육성해 우대금리 및 한도 확대 제공,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지원과 환리스크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권역별 히든챔피언 기업 지원금액 현황

(단위:억원, ( )업체수)
자료:수출입은행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을 일컫는 말로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이 펴낸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에서 비롯됐다.

"중소기업 우수 연구인력 양성 지원 3년간 수도권 1696명 광주 77명"

김재균 의원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시행하는 고급연구인력 활용 지원사업에서 광주·전남의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재균(북구 갑)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3년간 2990명을 지원했는데 수도권은 1696명인 반면, 광주는 77명에 그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50억원을 지원해 5100여명의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직했으나, 정작 연구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주와 전남의 지원실적은 각각 2.8%와 1.9%에 그쳤다.

이는 2008년부터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석·박사 고급연구인력이 부족한 상위지역 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광주지역은 매번 부족률 심화지역에서 배제되면서 지원실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R&D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원기업의 지역편중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고급연구인력 부족률 심화지역의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부족현상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1000여명 가량의 대학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선정해 신청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고 1인당 3000만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기청, 오늘부터 접수

중소기업청은 4일부터 각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2011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하반기 소상공인 자금은 약 14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우선 재해복구자금과 물가안정대책자금 등으로 구성된 '우선지원자금'에 996억원이 투입된다. 또 나들가게 점포 확장을 위한 '나들가게 자금'과 창업지원 등에 사용되는 '정책목적자금'에는 각각 380억원, 33억원이 배정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복구 자금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제출서류 및 심사 간소화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인턴사원 모집

현대차는 정규 4년제 대학 이공계 재학생 중 2012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플랜트 부문 동계 인턴사원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전형은 1차 서류, 2차 인적성검사(HKAT), 3차 면접, 4차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서는 4~17일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recruit.hyundai.com)를 통해 접수한다. /연합뉴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